

## 로마서 8장 29-30절 (1)

- 읽을 말씀 롬 8:29-30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5장10절을 해석하면서 발견된 변수들과 로이드 존스의 주장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칼빈주의자들이 견인의 교리의 근거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절, 로마서 8장30절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님을 증명하겠습니다.

**롬 8:29-3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29).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30).”

### (1) 이 구절이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바울은 30절에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오는 “영광” 을 보면 모두 영화 즉 궁극적인 구원을 뜻하므로(롬 8:17, 18, 21), 문맥에 의하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는 영화를 뜻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과거시제로 썼습니다. 때문에 영화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주장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후문맥을 살펴봐도 영화 외에는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마저 이 구절의 “영화롭게” 를 영화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이 구절의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이유입니다.

### (2)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성경해석의 기적!

이 구절의 해석을 위해 로마서 8장을 문맥에 집중하여 읽고 있을 때 29절 후

반절의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문구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궁금했지만 오리무중이었던 이 구절의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정말 “**영화롭게**” 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뜻하나?

29절은 예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예정의 목적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양)입니다. 존 스토틀도 “**선택은 입양을 목적으로 한다.**” 고 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5)**”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30절은 “**미리 정하신**” 으로 시작하고, 29절의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거나 버린 것이므로 명백히 절대주권에 의한 예정이 아닌 예지예정입니다.

그리고 30절의 “**미리 정하신**” 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29)과 같은 뜻입니다. 즉 예정의 목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도 당연히 예정의 목적인 입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다름 아닌 바울이 사용한 과거시제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 과거시제로 쓸 수 있는 것이 양자됨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함 뒤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는 실제로 양자됨을 뜻함이 분명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떻게 영화롭게 된 것인가?

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순히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영화롭게**” 의 헬라어 독사조는 영광스러운 지위나 상태로 높여지는 것을 뜻하는데, 양자 됨으로 보아도 뜻이 너무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지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권세를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요 1:12).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실제로 영광스러운 지위나 상태에 놓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입양은 실제로 영화롭게 된 것을 뜻합니다.

②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 것이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롬 8:17)**” 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실제 영화롭게 된 것일 뿐 아니라 가장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③ 성도가 이미 영화롭게 된 것을 보여주는 성구들이 있다.

그랜트 오스본은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 백성과 왕의 자녀(2:7, 10; 6:4)가 된 자들은 이미 영광을 누리고 있고"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한 구절 중 하나(6:4)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곧 영화롭게 된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도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요 1:12). 즉,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게 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④ 문맥에 양자 됨이 영화롭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어떤 분들은 “양자 됨이 영화롭게 된 것(30)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18절과 21절에 나오는 “영광” 은 분명히 영화를 뜻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미래에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받을 유업이 바로 “영광” 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자녀들의 것입니다(21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재림 때 이루어지는 영화도 영화지만, 영화에 대한 권리가 없던 사람이 자녀(상속자)가 되어 영광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것도 보이지만 앓을 뿐 분명히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영화롭게 하셨다’ 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⑤ 바울이 영광을 뜻하는 몸의 속량을 “양자 될 것” 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이미 양자인데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바울은 양자 됨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양자되었다고 합니다(롬8:15).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함으로 영화되는 것을 양자가 된다고 합니다(롬 8:23), 이것을 칭의처럼 ‘이미와 아직’ 의 구조로 보면, 우리 영혼은 이미 양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양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로서의 영광이 우리의 영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부활 때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면

그 영광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양자 됨은 둘 다 영광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전자는 영광의 권리를 가진 상속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후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영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화뿐 아니라 양자 됨에 대해서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⑥ 바울은 30절에서 미래시제가 아니라 과거시제를 썼다

흔히들 로마서 8장 29-30절에 나오는 ‘예지-예정-부르심-칭의-영화’ 를 황금고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칼빈 교리와 일치하는 황금고리가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는 성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갖고 사는 사람만 영화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성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화롭게” 가 단체로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영화가 아니라는 또 하나의 반증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칼빈주의자들이 견인의 교리의 증거로 강력하게 내세우는 30절의 과거시제입니다. 로마서 6장, 8장, 11장에서 각각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시제가 견인의 교리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시제를 쓴 이유는 “영화롭게” 가 양자 됨을 뜻하고 칭의와 마찬가지로 신자들에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에는 미래의 몸의 속량과 과거의 영화인 양자 됨이 있는데, “영화롭게” 를 과거시제로 썼으므로 당연히 영화가 아니라 양자 됨을 뜻한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⑦ 나의 해석은 그 뒤의 31-39절과도 잘 어울린다.

31-3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사랑하시는지가 나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즉 자녀로 삼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영화롭게” 를 양자 됨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 나눔과 적용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으로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영광의 깊이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기다리며 나는 어떠한 사랑으로 아버지께 화답하고 있는지 나누어봅시다.